

지역혁신체제와 사회적 자본

한성안*

〈 목 차 〉

1. 서론
2. 사회적 자본과 혁신
3.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체계적 모형
4. 정책적 결론과 향후과제

Summary : We witness now the changing techno-economic paradigm and the emerging learning economy. Reflecting on these changes, the group of Evolutionary Economists study recently the theory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but their research results are still now not theoretically 'systemized'. Moreover, they often indeed speak of the 'social capital', but do not investigate that. This paper tries to systemize their empirical findings and theoretical results and integrate the discussions on social capital in fields of sociology into a mathematical model.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 innovating process.

키워드: 사회적 자본, 신뢰, 혁신, 지역혁신체제

1. 서론

‘제5차 기술경제 패러다임’ 변화이후¹⁾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결정성이 이전에 비해 한층 더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성장 요인과 더불어 ‘진화경제학자’(evolutionary economist)들 사이에 ‘학습’과 ‘혁신’이 새로운 경제활동과 성장전략으로 인식

*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 seongan@ysu.ac.kr)

되면서, 이를 추동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결과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론은 특히 주목을 끈다.

첫째, 각 국가는 ‘특수한’ (상이한) ‘생산함수’를 갖는다는 점, 둘째,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 (‘요소부존도’)가 아니라 기술력, 제도적 장치, 기업간 관계, 사회·문화적 변수 등 혁신 유발적 변수들의 시스템적 결합방식 (상호작용적 학습역량)이라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와 ‘효율적 혁신 단위’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혁신의 새로운 주체로서 ‘지역’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진화경제학을 필두로 이루어져 온 ‘지역혁신체제’ 혹은 ‘학습지역’, ‘지역 클러스터’ 등에 관한 연구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속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과 달리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연구 역사는 매우 짧고 그 내용도 전자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이에 축적되어 온 국제적 연구 성과에 대한 편향적 관심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학계 내에서 시도된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 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성과들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술’ 역량 (technological competency)의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이들은 제도적 역량 (institutional competency)과 특히 지역의 학습 능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진화경제학과 사회학의 연구 성과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체제론은 사회적 자본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연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지역 혁신과 경제성공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결정성을 강조하고, 기술, 제도,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따른 지역성과의 ‘이질성’

1) ‘신습패터리안’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산업혁명이후 지금까지 네 번의 커다란 경제순환을 겪었는데 이러한 순환은 기본적으로 “기술체제의 변화”에 의해 일어났다. 그리고 각각의 순환과정에는 그 시대에 고유한 핵심기술 체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기술체계가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변동시킴으로써 “경제사회의 총체적 체제”를 변화시킨다. 각 시대 (장기파동)에 고유한 기술체계가 일으키는 이러한 변화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불린다. 이에 따르면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네 번의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존재하였다. 첫 번째의 변화가 방직산업과 기술의 발명이 기폭제가 된 영국의 산업혁명이고 두 번째가 19세기 중반까지의 증기기관과 철도산업이 가져 온 생산력의 발전이며, 세 번째 전환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전기를 이용한 내연기관의 발명 등이 그것이다. 또, 1980년대까지 진행된 포드주의 대량생산방식에 기초한 석유화학, 전자산업 중심의 패러다임이 네 번째 주기를 형성하였다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기술을 이용한 IT, 신소재, 생명공학 산업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주기가 “제5차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이 이론의 특징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기술’과 더불어 ‘주도산업’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 방법’에 따라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역사적 변화과정을 질적 변화로 이해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단계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Dosi, 1982 ; Perez, 1983 ; Freeman and Perez, 1988).

(heterogeneity)을 진화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에 연구 성과가 크게 도입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2장에서는 지역혁신체제론의 문제점과 과제들이 이론적 ‘비체계성’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이라는 모습으로 도출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사회학 분야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결과가 도입된다. 본 연구는 혁신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적’ 과정이라는 진화경제학자들의 입장에 동의한다. 3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결과와 지역혁신체제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수학적 모형을 구축한다. 결론이 되는 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논의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이론적 연구로 제한되며²⁾,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향후과제로 미룬다.

2. 사회적 자본과 혁신

2.1 지역혁신체제론의 문제점과 과제

지난 20년 사이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화’라는 새로운 두 가지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다. 먼저, ‘과잉 정부’, ‘재정 위기’로 요약되는 바와 같이, 70년대부터 국민 국가 (nation-state)는 내부적으로 이미 ‘국가 위기’ (state crisis)에 직면해 오고 있었다. 또, 세계화와 더불어 케인지안 국민국가의 경제정책 효과의 ‘누수현상’이 감지되면서 국가 단위의 정책 한계성이 인식되자 (Ohmae, 1991), 대안적 경제 단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³⁾. 국민국가의 공동화 (hollowing-out)와 국가의 정책 수행 능력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보

2)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이론적 연구가 지금까지 유럽에서 이루어져 온 수많은 실증연구 성과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상적 구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3) ‘국민국가의 공동화’ 현상으로부터 곧바로 국민국가의 소멸을 주장하는 이른바 ‘세계화론’은 국민국가가 성립되던 역사적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기술, 지역, 인력, 환경 분야에서 증대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굳이 정치학과 사회학분야의 ‘국가론’을 거론하지 않을지라도 국민국가는 산업자본가, 노동자, 중산층 등 모든 사회세력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이는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국가들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나아가,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이 핵심 기능과 전략본부를 자신의 국민 국가 안에 두고 있는 현상과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다른 국민국가의 소멸)를 주장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국민국가를 강화하는 현상은 국민국가의 ‘안정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우리는 국민 국가의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사멸을 예상하기보다 그것이 세계경제, 지역경제와 변증법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 주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Rosenau (1990)는 ‘하위 집단주의화의 개막’ (rise of sub-groupism)으로 표현한다.

지역에 관한 관심은 무엇보다 ‘혁신’과 ‘학습’이 경제활동과 전략으로 되는 새로운 현상과 결부되어 있다. Lundvall (1996)은 현재의 자본주의를 “학습 경제의 단계”로 이해한다. 학습 경제에서는 ‘생산 요소’의 ‘선택’과 ‘배분’보다 ‘지식’의 ‘혁신’과 ‘학습 능력’이 중시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혁신이 경쟁에서 결정적인 수단” (Lundvall and Johnson, 1994)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혁신은 기존의 ‘선형 모형’이 아니라 ‘비선형적 상호 학습 과정’으로 이해된다 (Lundvall, 1992; Smith, 1994).

나아가, 혁신은 기술적 과정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제도적 및 문화적 정황 (context)과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문화적 과정이다. 실제로, Lundvall의 학습 경제론에는 ‘현대 경제에 대한 지식과 학습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습의 제도 및 사회 관련성’에 관한 두 가지 가정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현대 경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원은 지식이며,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학습이라고 가정된다. 지식이 경제의 기타 자원과 다르다는 사실은 표준 경제학을 부적절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학습이 주로 상호 작용적이며, 그 때문에 그 제도적, 문화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착근된 과정이라는 것이다” (Lundvall(ed.), 1992, p. 1).

혁신을 이처럼 상호 작용적 학습과 ‘사회학적 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학습 경제에서 문화, 신뢰, 협력 등 사회적 변수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변수들이 혁신과 학습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리적 최적 범위’에 관한 논의가 관심을 끌게 된다. von Hippel (1988)은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 (learning-by-interaction)은 기업들이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기술 및 상업 문제의 배경과 이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 차원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세계화와 더불어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학습 경제로 이행한 결과 ‘혁신’과 ‘학습’이 새로운 경제활동과 전략으로 인식됨에 따라, 혁신 과정을 국가 차원으로부터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Freeman, 1995), 이러한 의문은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지역에 관한 연구 성과와 맞물리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Malerba (1993)와 Locke (1995)는 최근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가져온 혁신 활동은 국가 혁신 체제에 기인하기보다 오히려 상호 작용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지역 클러스터 (local cluster)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Porter (1990)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성공적 경쟁의 진원은 점점 지역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시작된 후, Moulaert and Sekia (1999)에 의해 “지리적 혁신 모형” (territorially innovation model)으로 통칭되는 “산업 지구”, “신산업 공간”, “클러스터”, “혁신 환경”, “지역 혁신 체제”, “학습

지역'에 관한 연구는⁴⁾ 개방 경제 체제하에서 지역이 혁신 단위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제론은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미결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한성안 (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여전히 '서술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변수들 사이의 함수 관계와 지역의 '시스템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또, 기존의 지역 혁신체제론은 '지역적 운치'를 중시하고 시스템의 '내부적 응집성'(coherence)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역 체제'를 '세계화'의 관점에서부터 이해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⁵⁾. 이러한 한계 때문에 지역 혁신 체제론은 '과급' 지식이 갖는 중요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학적' 과정이다. 즉, 혁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지식스톡 뿐 아니라 제도적 변수, 더 나아가 참여,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포함된다.

Lundvall (1992)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의 과정에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학과 여타 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성과들은 지역혁신체제의 연구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시민사회의 발전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부터 이해되어왔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혁신'과정과 더불어 '지역혁신체제'의 연구에 응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연구는 서술적인 차원에서나마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론적 연구는 크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특히, 지역혁신체제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 '생산요소'의 결정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해 이러한 '사회적' 혁신변수들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의 '동질성'(homogeneity)과 그 '수렴'(convergence)을 '전망'하는 신고전과 경제학적 관점에 대해 '현존'하는 지역혁신체제들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발산'(divergence)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체제론의 일천한 연구사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기왕에 축적되어 온 진화경제학과 사회학분야의 해당 연구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점에 더 큰 책임이 있다.

4) 이러한 논의에 관한 문헌들은 Lagendijk (2001)에 정리되어 있다.

5) 이런 점에서, Carlsson and Stankiewicz의 진술은 지역 시스템을 세계화와 더불어 이해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 국가는 많은 기술 시스템들의 자연적 경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때때로 지역 및 지방적 기술 시스템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술 시스템은 국제적이며, 심지어 세계적이다" (Carlsson and Stankiewicz, 1997, pp. 49).

결국, 지역혁신체제론이 학문의 영역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혁신’ 연구에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학문분야에서 이미 축적되어 온 ‘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이론체계 안에 통합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2.2 사회적 자본의 정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매우 상이한 이론적 전통들에 젖줄을 대고 있어 그 개념의 용례와 내용이 극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던 부르디외와 콜만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먼저 검토함으로써, 이 개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함의를 대략 포착할 수 있다.⁶⁾

Bourdieu (1986)는 세 가지의 자본을 구분하는데 거기에는 첫째, 물적인 권리 형태로 제도화할 수 있으며, 즉각 화폐로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 둘째, 교육 자격증 (졸업장 등)으로 제도화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 가능한 문화적 자본, 셋째, 지속적 상호 대면과 인식에 관한 제도화된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로 구성되며, 특정 조건하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마지막 두 가지의 자본이 첫 번째의 자본과 다르게 정의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모두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은 일반 ‘자본’처럼 축적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산출할 잠재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을 비가시적 관계망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시적인 경제적 자본과 개인적 차원의 문화자본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가시적 사회 관계망은 공유자산인 동시에, 구성원을 ‘후원’하며 이들에게 ‘신용 보증서’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부르디외에게 그러한 신용보증서는

6)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연구결과들이 어떤 ‘지리적 거리’에서 적용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회적 자본이 적용되는 지리적 단위 (지역, 국가)는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 내용과 항목, 각 항목의 형성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회적’인 것의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 논문의 주제를 넘어서므로 우리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를 ‘지역’으로 국한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또 독자들이 이 제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역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실증 연구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이 논문은 독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역혁신체제의 연구과정에 국가혁신체제의 실증연구결과들을 원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충적 연구방식은 ‘지역’을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로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근본적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체제론이 보다 학술적인 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접 분야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피할 뿐 아니라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론의 연구에 중점을 두는 이 논문은 앞으로도 국가혁신체제론의 연구결과를 자주 원용할 것이다. 예컨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와 달리 혁신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역혁신체제론의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 방식은 앞으로 나올 혁신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항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 전체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사회 내 특정 집단 (사회적 강자)의 집단 점유물이라는 점이 다7).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과 그 생산성은 그 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Coleman (1990)은 자본을 물적 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으로 구분한다. 물적 자본은 도구, 기계, 혹은 다른 생산 설비로 구체화된 자본을 의미하며, 인적자본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에 따라 행위할 수 있게 해 주는 능력과 기능인데 이는 주로 공식적 교육을 통하여 획득된다. 또, 사회적 자본은 행위를 촉진시키며 특정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말하자면 ‘생산적인 사회 관계망’ (productive social network)이다.

Bourdieu와 마찬가지로 Coleman의 사회자본도 집단과 개인 모두에게 생산적으로 이용될 경제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이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구조 속에 존재한다. 물론 그 존재 양식은 비가시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부르디외의 경우처럼 ‘자본’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공공재’에 해당된다. 부르디외와 다른 점은 그의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형태를 구성원간 의무와 기대, 사회조직 내에 존재하는 신뢰, 유용한 정보교환, 지역사회 내의 규범과 제재 (sanction), 권위관계, 그리고 목적형 사회조직 등으로 구분하고 그러한 사회자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구성원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부르디외는 의무감 (신뢰)을 사회자본의 유일한 형태로 간주한다.

결국, 부르디외와 콜만의 개념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Putnam (1993)은 이탈리아 각 지방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사례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각 사회의 정치·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였다. 1970년대 초, 이탈리아에는 20여개의 강력한 지방정부들이 세워지는데, 이들의 통치형태는 거의 동일했지만 이들 지역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배경은 매우 이질적이었다. 산업화 이전 단계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부터 후기 산업지역에 이르기까지, 또한 가톨릭 지역에서부터 열성 공산주의자들이 다수를 형성하는 지역까지, 그리고 봉건적 전통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부터 매우 근대화된 문화를 지니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가 존재했던 것이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비효율, 무능력, 부패 등을 보이며 참담한 실패를 초래한 반면, 다른 지방정부들은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및 경제개발, 환경, 의료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7) 이러한 내용은 콜만이 계급관계의 사회적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뒤에 다룰 콜만의 기능주의적 사회자본론이 갖는 한계를 밝혀 주며,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왕의 다양한 가치중립적 관점들을 극복할 단초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이 논문은 일단 부르디외의 ‘기능주의적’ 측면에만 주목하기로 한다.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런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Putnam은 이들 각 지역의 정부조직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당정치나 이태올로지, 자원과 경제적 풍요도 등 역시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사회적 안정 혹은 정치부문의 조화 역시 설명의 실마리를 주지 못하였다. 그는 지역의 성공을 보장해 준 요인을 시민적 유대의 전통들 (투표율, 신문구독자수, 합창단과 문학서클, 라이온스 클럽과 축구모임의 회원 등)에서 찾았다. 에밀리아, 로마냐, 투스카니 등에서는 왕성한 공익활동을 벌이는 많은 커뮤니티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지역의 시민들은 정부의 후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 때문에 자발적으로 서로 연대하였으며, 서로가 공정하게 행동하리라 믿으며, 법을 존중하였다. 또한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크들은 수평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들 시민공동체들은 단결과 시민참여, 통합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깔라브리아와 시칠리아와 같은 지역의 공통점은 '비시민적' (uncivic) 문제 때문에, 사회 문화적 조직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고, 준법정신도 미약하였으며, 그에 따라 엄격한 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동시에, Putnam은 시민적 유대와 참여가 정치의 효율성뿐 아니라 경제적 풍요를 낳는다고 강조한다. 즉, 규범이나 시민적 연대의 네트워크 (참여) 속에서 구현되는 사회자본이 정부의 효율성 뿐 아니라 경제적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Brusco (1996)도 Emiliana-Romagna 지역의 높은 효율성은 높은 수준의 노동자 참여와 협력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사례는 스칸디나비아 선진 국가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현재 노르웨이를 위시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평등주의적 정치제도와 사회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국민들은 사회 정의와 연대성의 가치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적 통합 (social integration)도 강력히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그 지역에서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며 사회와 직업 생활에서 갈등은 약한 대신,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광범위하게 창출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노동조합은 특히 협력 지향적이다. 이러한 노사간 협력 관계는 스칸디나비아의 경쟁력에 이바지하였다 (Asheim, 2000). 결국, 이탈리아 지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독특한 요소는 기술 경제 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신뢰, 협력 등 비경제적 사회 변수들이었다 (Asheim, 2000).

사회적 자본은 역시 금융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Guiso *et al.* (2000)은 협회 (association)에 대한 참여 수준, 선거 참여, 기타 시민적 개입의 측정수단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금융발전과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사회적 자본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들일수록 주식시장에 더 많이 투자하며, 공식적 금융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다. Putnam이나 Guiso *et al.*와 같은 이탈리아 연구자들에게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항목은 시민적 규범과 시민적 참여 (civil engagement)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과 경제적 발전의 강한 상관관계는 Fukuyama (1995)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⁸⁾. 예컨대, 후쿠야마는 일본의 경제적 발전이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상호 신뢰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한다. Knack and Keefer (1997)도 신뢰와 시민적 규범 (civil norm)은 높은 소득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식적 그룹에 대한 회원가입 변수는 성장과 무관하였다. 따라서 Putnam (1993)과 달리 이들은 참여보다 신뢰와 시민적 규범이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 Hong *et al.* (2001)은 미국에서 “자신의 이웃을 아는” 사람들의 주식시장 참여율은 더 높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금융제도 사이의 (+)관계를 주장한다. La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 (1997)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국가간 분석에서 신뢰의 표준편차가 1 증가하면 법률적 효율성 (judicial efficiency)은 0.7 표준편차 정도 더 커지며, 정부 부패도 0.3 표준편차만큼 감소한다. 이는 신뢰가 경제성장과 금융제도뿐 아니라 정치적, 법률적 제도의 발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단지 도덕적 가치로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재’로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르디외, 콜만, 푸트남,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관점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실증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성격과 공공재적 성격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이 과정으로부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의를 개략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해주는 공공재로서 그 집단의 경제적 상호이익 달성에 필요한 사회 구조를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구조 안에는 수많은 콘텐츠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특히, 신뢰, 참여, 사회적 자본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다수 연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참여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게 하게 해 주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생활의 특징”으로 정의되는 Putnam (1995)의 사회적 자본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 사이의 관계도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8)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이들에 의해 발견된 다른 중요한 점들이 간과되는 수가 많다. 이들은 사회적 자본이 많은 지역에서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경제성장과 균등분배 상관성마저도 지역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최고관리자들의 수탈적 행위를 억제하는 제도가 존재할 때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 사이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 특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암시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분들은 원리적으로나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상관성이 매우 크다. 예컨대, 참여를 강조한 Putnam (1993)은 이탈리아 지역의 사회적 신뢰는 몇 가지의 시민 참여 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Knack and Keefer (1997)도 신뢰가 시민적 규범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발견한다. 1972~1994년 General Social Survey를 이용하여, Brehm and Rahn도 시민적 참여 (시민적, 정치적 조직에 대한 등록 건수)와 신뢰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Guiso, *et al.*, 2000, 재인용). 말하자면, 신뢰는 참여와 규범 등 사회구조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Coleman (1990)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산물로 이해한다. 즉, 균형적 기대 (equilibrium expectation)로 이해될 수 있는 신뢰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의해 유지된다. 이 때, 그에게 있어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강제력 (enforcement power)과 같다. 여기서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나지만, 양자의 상관성은 매우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자본이 많은 지역에서는 신뢰 정도도 높았다. 실제로 Bourdieu (1986)과 Fukuyama (1995)는 신뢰를 사회적 자본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지금부터 우리는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성분으로 이해할 것이다.

2.3 신뢰와 혁신, 경제성장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신뢰는 사회경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뢰가 ‘자본’으로 간주되는 한, 그것은 축적될 뿐 아니라⁹⁾ 경제단위의 성과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경제단위간 성과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다.

Williamson (1985)은 거래비용접근방식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행위자를 구별하였고 Arrow (1974)와 기타 연구자들도 무임 승차자 (free rider)문제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행위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Williamson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지배적일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합리적 경제인’ (rational economic men)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경제활동 주체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Lundvall (1992)은 합리적 경제인을 정직과 신뢰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과 기회주의와 불신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합리성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회주의’ (opportunity)와 ‘정직성’ (honesty)이라는 매우 상이한 행태를 적용한다.

9) 신뢰가 일종의 ‘자본’인 한, 창조되어 축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관한 최근의 경제학적 연구는 경제성과에 대한 신뢰의 영향뿐 아니라 그것의 축적과정에 관한 연구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전자로 연구 영역을 제한한다.

세계경제가 ‘신뢰형 합리경제인 체제’ (Hon-REM System)와 ‘기회주의적 합리경제인 체제’ (Opp-REM 시스템)라는 두 가지 혁신시스템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신뢰형 경제인 체제에서는 한 행위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과 같은 매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반대로 기회주의 경제인 체제에서는 한 행위자가 정직하게 행위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정직하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는 이 시스템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인들은 그의 선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자신의 기대는 채워지지 못할 것이다. 두 시스템에서 개별행위자는 그 시스템의 지배적인 행동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의미에서 두 시스템은 합리적 경제인의 사회들이다¹⁰⁾.

그렇다면, 두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경제적 성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서는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과 상호학습 (interactive learning), 나아가 혁신 (innovation)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첫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래비용적 차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Williamson, 1985). 모든 거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계약 (contract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에는 거래비용이 수반된다. 거래비용에는 계약 체결 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비용, 계약 당사자와의 흥정 비용, 계약 작성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계약의 실행 비용 및 계약이 준수되는지에 대한 감시 비용, 또한 계약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수정하거나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라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건전한 상호의존의 규범과 신뢰가 보편화된 사회일수록 계약파기의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공식적 계약이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히 구체화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계약준수를 위한 감시비용, 그리고 계약파기로 인한 분쟁비용이 감소된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감시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3자 (법정)를 소환할 필요도 없다” (Offe, 1996, p. 10). 즉, 신뢰는 소송과 채권을 실행시킬 때 낭비될지도 모르는 사회적 에너지의 상당량을 절약시켜 주는 것이다. 결국, 신뢰가 풍부한 성실경제체제하에서는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기회주의적 행위자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커진다.

둘째, 신뢰 문화는 사교성 (sociability)과 다양한 결사체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인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해준다. 또, 신뢰문화는 상호작용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고, 개인간 친밀한 접촉을 확대시켜 준다. 달리 말하면, 신뢰는 “사회적 자본”, “자발적 사교성” (spontaneous

10) 물론, 진화경제학의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의 가정에 따르는 이 논문은 각 행위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을 부인한다. 따라서 성실 경제인이 전적으로 신뢰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합리성의 제한에 기인할 뿐 타인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무관하다.

sociability) (Fukuyama, 1995), “시민적 참여” (civic engagement)를 촉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셋째, 신뢰문화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일체감을 높이고, 강력한 집단적 연대를 유발하는데, 이는 다시 협력, 상부상조, 심지어 타인을 위한 희생의 각오로 이끈다. 신뢰문화는 이처럼 비용 ‘절감’이라는 소극적 효과만을 낳지 않고, 참여, 협력, 나아가 가장 고차원적인 활동인 헌신을 ‘창조’해 내는 적극적인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문화와 혁신 활동의 관계이다. 모든 인간 행위, 그 중에서도 특히 혁신활동은 새로움과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새로움과 미래는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하며, 그 때문에 위험하다 (Luhmann, 1994). 불확실성은 대부분 타자 (인간, 집단, 제도)의 우연적 행위 (contingent action)에 기인한다. 우리는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상대자가 우리의 행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안들의 성공과 실패는 분명히 이들의 반응에 좌우된다. 그러한 인간 유발적 불확실성 (human-induced uncertainty)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타자의 향후 우연적 행위에 대해 도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Sztompka, 1996). 신뢰는 우리가 타자의 우연적 행위에 내기 (betting)할 경우에 이용되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인데, 이 때 신뢰풀이 클수록 내기에 대한 의지는 커지고, 시도율도 높아지며 위험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뢰는 먼저 인적 행위 (human agency)를 해방시키고 동원한다. 즉, 모험적, 창조적이며, 혁신적 활동을 해방시켜 준다¹¹⁾.

사회적 관계가 신뢰로 충만할 때, 이 과정은 그 관계의 양쪽에 함께 작용한다.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제공자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신뢰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불안, 의혹, 감시로부터 해방되므로 상호작용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또 신뢰제공자는 항상 “그들의 손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 타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 통제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나 신뢰는 그것의 제공자뿐 아니라 수령자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신뢰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뢰받는 것도 중요하다” (Gambetta, 1988, p. 221). 신뢰를 부여받으면 일반적인 사회적 제약 (social sanction)이 잠정적으로 중지된다. “신뢰의 영예” (credit of trust)를 얻은 조직과 제도는 직접적인 사회적 감시와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성실행위자 시스템에서는 행위에 대한 자유 공간이 확대된다. 이것은 비순응 (non-conformity), 독창성 (originality), 그리고 혁신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11) “신뢰가 존재할 때, 경험과 행위의 가능성이 증대한다” (Luhmann, 1979, p. 8).

이미 앞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불신이 팽배한 기회주의 체제에서는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수직적 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혁신은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해 일어나며, 후자는 다시 신뢰 규모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양 당사자가 서로 간교하게 행동한다면 상호작용적 학습 효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록 수직적 통합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습효과는 매우 불명확해 질 것이다¹²⁾. 물론, 기회주의적 행위자들에게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제적 위협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단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복잡하고도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에 강제로 몰입하게 하기는 한층 더 어렵다. 결국, 기회주의적 체제에서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은 감소될지 모르나 상호작용적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¹³⁾. 그러나 신뢰에 기반하는 성실경제인 체제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상호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혁신이 활발히 진행된다. 특히, 신뢰와 협력으로 ‘조직화된 시장’ (organized market)에서는¹⁴⁾ ‘질적’ 정보가 잘 교환되기 때문에 ‘제품혁신’ (product innovation)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Lundvall, 1992)¹⁵⁾. 또, 혁신과정에서는 ‘암묵적 지식’의 유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신뢰, 협력,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 때 잘 유통된다.

그러한 유익한 효과들을 더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이를 불신의 결과와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심이 지배적인 “불신 문화”나 “냉소주의 문화”의 환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의 작동방식을 방해한다. 첫째, 그것은 인간적 기능들을 마비시켜 천편일률적이고 순응주의적이며 적응적 행위와 철저한 소극주의를 유발한다. 둘째, 그것은 사회적 자본을 훼손함으로써 고립, 원자화, 결사체의 붕괴, 인적 네트워크의 소실을 유발한다. 셋째, 그것은 방어적 자세, 적대적 분위기, 소문과 편견, 노골적인 외국인 증오를 동원한다. 넷째, 그것은 개인을 소외, 멸절시킴

12) 이 지점에서 거래비용설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13) 이 이유는 물론 거래비용설이 “주어진” 상품 묶음들 (given bundles of goods)간의 거래에만 초점을 맞출 뿐 상호학습이 요구되는 ‘제품 혁신’ (product innovation)에 대한 관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비용설은 지식기반 사회의 성장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다.

14) “조직화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질적 정보의 교환, 협력, 위계관계, 상호신뢰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 관계들이 지속적이며 선택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 성분들은 기술기회와 사용자 니즈가 항상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시장에서 가장 뚜렷할 것이다” (Lundvall, 1992, p. 51).

15) 익명적 하도급 관계 (anonymous relation between producers and users)의 특징을 갖는 신고전파적 ‘순수시장’에서는 제품 혁신이 매우 드물며 우연적일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양자는 고립된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사용자의 새로운 니즈를 관찰하기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는 신제품이 갖는 질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제품혁신이 빈번한 곳에서는 불확실성이 높다. 그 결과 거래 비용이 증가하므로 수직적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직통합을 통해 제품혁신이 점차 공정혁신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수직통합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제품혁신은 차츰 감추게 된다. 결론적으로, 순수시장과 수직통합 시장에서는 제품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으로써, 대안적인 동시에 심지어 불법적인 정체성 (갱, 마피아, 비정상적 하위문화)을 찾으려 한다¹⁶⁾. 이로 인해 항상적 경계의 필요성 때문에 거래비용은 매우 상승하는 반면 협력의 기회가 방해 받는다. 나아가,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제한받기 때문에 혁신은 일어나기 힘들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는 <표 1>로 요약된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물론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과 혁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Francis Fukuyama도 “한 나라의 후생뿐 아니라 그 경쟁능력은 단 하나의 지배적 문화적 특성, 말하자면 한 사회에 고유한 신뢰수준에 좌우된다” (Fukuyama, 1995, p. 7)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로부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경제적, 기술적 변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체계나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변수가 역사를 구성하고 움직여 나가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점이다.

<표 1> 이질적 합리성에 입각하는 시스템의 차이

		기회주의적 행위자 체제	성실행위자체제
거래비용		높다	낮다
혁신역량	학습능력	낮다	높다
	인적네트워크	적다	많다
	협력, 연대	적다	많다
	모험	낮다	높다

나아가, 사회 자본이론은 사회, 정치, 경제를 각각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경제와 혁신이 사회와 분리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자체의 내적 논리 혹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시간과 지리적 공간상에 위치하는 구체적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들과 상호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다.

2.4 지역혁신체제의 이질성

가. 혁신의 상호의존성

이처럼 혁신은 단순히 기술론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

16) 마피아의 비정상적, 폐쇄적 신뢰문화는 그가 속한 사회에 정상적 신뢰문화가 결여되어 있고 불신의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과정이다. 또, 지식의 창조과정과 확산과정은 교육제도와 기술 확산제도, 노동시장, 금융제도 등 제도적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reeman and Soete, 1997).

1770년대와 1780년대 진행된 면직물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분명히 기술 발명과 그 확산에 기인하였다. 예컨대 1771년에서 1781년 사이 제니방적기와 수차 발명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고, 1781년과 1791년 사이 물방적기가 발명되는 한편 아크라이트의 특허가 소멸된 이후 기술진보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자본시장이 잘 발전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발명결과들은 산업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¹⁷⁾.

영국의 사회적 이동성 (social mobility)은 다른 유럽보다 더 컸다. 당시 기업가들이 매우 다양한 계층과 전국 각지로부터 충원된 결과 발명가, ‘연구자’ (contriver), 산업가, 기업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다.

또, 교육에 대한 비국교도의 열정은 자신들의 학교를 설립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비국교도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산층으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선도적 발명가들 (와트, 그의 조수인 싱클레어, 텔포드, 매커덤, 닐슨 등)을 특히 많이 배출하였는데 당시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초등교육체제와 몇몇 최고의 대학을 갖추고 있었다. 브리스톨, 맨체스터, 워링톤, 노스앰튼 등 영국의 소도시에 설립된 이교도들의 아카데미들은 스코틀랜드에서 대학들이 기여한 것과 같은 역할을 잉글랜드를 위해 수행하였다. 성공한 몇몇 기업가들은 당시 학문에 정통하였으며 이러한 학문적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¹⁸⁾.

산업혁명은 가내 수공업적 직물 생산체제로부터 공장 생산 체제로의 조직 변화를 근본적으로 수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공장의 작업시간 규칙이나 감독과 같은 문화적 변화뿐 아니라 제도적 변화와 갈등을 겪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었다. 결국,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발명의 결과가 아니라 기술, 제도, 문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혁신의 상호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의 공장’이 되기까지 영국이 소유하고 있었던 국가혁신체제의 특징은 <표 2>와 같았다. 이것은 혁신에 대한 제도 결정성과 함께 영국의 경제 발전이 기술, 제도, 사회 변수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Schumpeter는 기술 혁신 뿐 아니라 마케팅 및 조직 혁신을 혁신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후자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제도적 혁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기술, 조직, 제도는

17) 보울턴과 와트가 버밍햄에 있는 보울턴의 개인 작업장에서 증기기관을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의 다른 많은 기업들과 같이 그러한 자본시장 (지방 자원, 가족, 친구, 지방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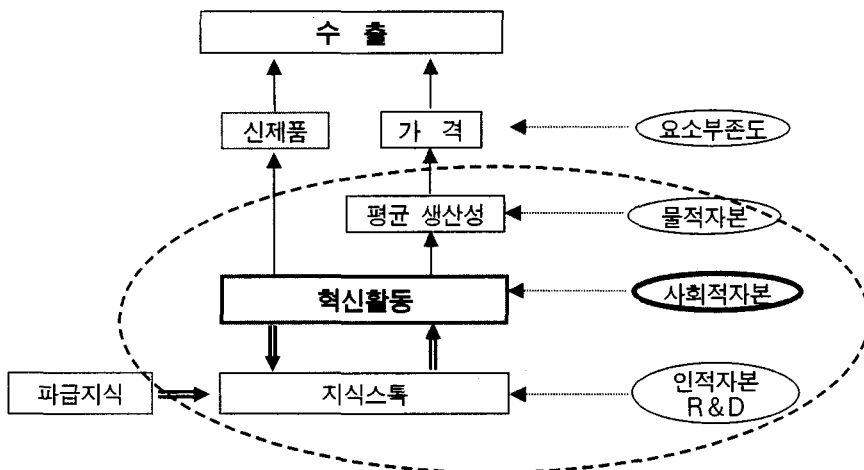
18) 예컨대, 도시산업을 주도하던 기업가 및 혁신자인 요시아 웨지우드는 1783년 왕립학회 (Royal Society)의 연구원으로 되었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상호 의존적이었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변수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¹⁹⁾.

<표 2> 영국의 국가혁신체제의 특징 (18, 19세기)

- 과학자와 기업가사이의 강력한 연관성
- 과학이 국가에 의해 장려되고 지역 클럽들에 의해 보급됨으로써 국가적 제도로 되었다.
- 지역 기반시설 (운하, 도로, 철도)에 대한 영주의 강력한 투자
- 동반자적 조직형태 때문에 발명가들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고 기업가와 협력할 수 있었다 (예, 아크라이트와 슈트러트).
- 무역과 서비스의 이윤이 국가 및 지역 자본시장을 통해 공장생산 (섬유)에 투자될 수 있었다.
- 경제정책은 고전파 경제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산업화에 역점을 두었다.
- 경쟁자의 추격으로부터 국가적 기술 지체를 보호하고자 강력히 노력하였다.
- 1850년경 영국의 1인당 생산성은 유럽의 약 2배에 이르렀다.
- 무역에 대한 내외적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였다.
- 비국교도의 아카데미와 몇몇 대학은 과학교육을 제공하였다. 신산업 소도시에서는 시간제로 기계공들이 훈련되었다.

자료: Freeman and Soete (1997)



<그림 1> 혁신적 지역체제의 변수간 상호작용관계와 성과

19) 제도적 변수가 혁신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국가혁신체제론'의 연구에서 강조된다. 2차 대전 후 후발산업국가들 (일본, 구소련, 한국, 브라질)의 경제발전과 혁신과정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제도적 역량은 혁신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때문에 이 논문은 혁신과 경제성장의 과정을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과정이라기보다 제도와 문화에 규정되는 ‘사회학적 상호작용과정’으로 정의하였던 것이다. 경제성장을 수출로 측정할 때 이러한 상호의존적 과정은 <그림 1>로 도식화할 수 있다²⁰. 복화살표에서는 제도적 변수가 특별히 작용함을 의미한다.

나. 지역혁신체제의 이질성

혁신은 단지 기술발전만이 아니라 이처럼 지식 (기술), 제도,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 혁신을 주요 경제활동과 전략으로 이해하는 ‘진화경제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라도 지식의 창조와 혁신 과정에서 문화적 근접성,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 지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²¹ ‘지역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은 ‘부존 생산 요소들’ (endowed factor)의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 정태적 ‘집적’ 상태가 아니라, 창조되고 누적되는 ‘인위적 산물들’ (artifact)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는 동태적 ‘지역 혁신 체제’로²²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혁신의 유형과 규모가 달라지며, 이는 다시 상이한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결국 상이한 경제성장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회학적’ 상호작용과정 때문에 최적의 지리적 범위를 갖춘 지역들 사이에도 ‘혁신적 지역’과 그렇지 못한 ‘비혁신적 지역’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은 그 지역의 사회적 관계 속에 착근되어 있어 ‘이동성’이 매우 낮다. 또, 그것은 최소한 ‘양자’간의 관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외자의 접속 (plug-in)이 매우 어렵다.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착근성’과 ‘비개방성’ 때문에 지역간 이질성은 쉽게 소멸되기 어렵다. 진화 경제학의 이러한 주장은 신고전파적 ‘수렴’에 대한 전망보다 현존하는 국가별, 지역별 혁신 활동의 ‘이질성’과 혁신 성과의 ‘차이’, 나아가 ‘발산’을 잘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실증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놓은 <표 3>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모든 지역이 지역혁신체제에 해당하는 ‘동질적’ ‘혁신클러스터’에 속하지 않으며, 혁신성에 따라 ‘이질적’ 지역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²³.

20) 그림에 표시된 파급지식, 물적자본, 임금, 인적자본, R&D와 같은 변수들은 이 논문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성안 (2002)를 참고하라.

21) 국가별 경제성장률 격차에 관한 지금까지의 수많은 연구 문헌들을 검토한 후, Fagerberg (1994)는 ‘추격’ 가능성은 한 가지 요소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나라들, 말하자면 투자, 교육, R&D 등 필수적인 자원을 동원해 낼 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으며, “이 요소 중 많은 것들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경제 성장과 혁신 활동에 대한 ‘변수간 상호작용’의 관점을 잘 확인시켜 준다.

22) Cooke and Morgan (1998, p. 71)은 지역 혁신체제를 “어떤 제도적 환경 (institutional milieu)에 설정된 일련의 완전한 혁신 조직을 소유하는 지역이며, 그 환경에서는 혁신 행위자간의 시스템적 연계관계와 상호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한다.

<표 3> 클러스터의 유형과 성과

분 류	자생 클러스터		혼합 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비공식적 클러스터	조직 클러스터	혁신적 클러스터	기술 공원과 인큐베이터	수출 촉진 지구	
사 례	Suame, Magazine (가나)	Sialkot (파키스탄의 편잡) Nnewi (나이지리아)	Bangalore(인도) Jutland(덴마크) Belluno(이탈리아) 실리콘밸리(미국) 바덴부르템베르크(독일)	Business International Incubator(중국)	Maquiladora (멕시코)	
기술수준	저위	중위	고위	저위/고위의 공존	중저위	
기 업	혁신	저위	중위	고위, 지속적	중위	저위
	숙련	저위	중위	고위	중위	중저위
	기업규모	소	중소 및 대	중소 및 대	중소	중소 및 대
	산업유형	중기술	중기술	저/중/고기술	고기술	저기술
사 회	연관관계	약간	약간	광범위	저위	저위
	신뢰	저위	고위	고위	저위	저위
	협력	저위	중위, 비지속적	고위	저위	중위
	경쟁	고위	고위	중고위	중위	고위
학습 역량	저위	중고위	고위, 지속적	고위	중저위	
정책/제도 역량	저위	중저위, 비지속적	중고위	고위	고위	
성 과	제품변화	저위 혹은 무	중위	고위, 지속적	-	-
	수출	저위 혹은 무	중고위	고위	중위	고위

자료 : UNCTAD (1998), Mytelka and Ferinelli (2000), Saxenian (1996), Voyer and Roy (1996)를 응용

<표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생성과 의도성을 함께 갖는 '혼합클러스터'의 경제성과 혁신성도가 가장 높고, 제도적 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자생적 클러스터 중 비공식적 클러스터의 성과가 낮다. 또, 정책적으로 조성된 클러스터의 경제적 성과도 비교적 높다. 이러한 성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작지 않다.

3.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체계적 모형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한 지역의 혁신성과, 궁극적으로 경제성과는 지식 (기술)스톡 뿐 아니라 제도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시스템적 상호작용이며, 이 과정에서

23)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변수와 그 변수들의 상호작용방식의 상이성에 관해서는 한성안 (2002)을 참조하라.

사회적 자본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의 규모와 그 상호작용방식에 따라 혁신 및 경제성과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모형화할 수 있다.

한 지역 (l)의 경쟁 능력은 최종적으로 수출시장에서 검증되므로 경제성과는 수출규모 (X_l)로 측정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수출규모는 지식스톡 (K_l)과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기계장비 및 공공기반 시설과 같은 물적 자본규모 (C)도 고려된다 (Fagerberg, 1988). (1)식의 지식스톡은 주로 신제품 혁신을 통해 수출에 직접 반영된다.

$$X_l = \beta P_l + \gamma K_l + \phi C_l \dots\dots\dots (1)$$

단, $\beta < 0$, $\gamma > 0$, $\phi > 0$

‘요소부존도’중 노동의 가격인 임금 (W_l)은 진화경제학의 관점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된다 (Dosi, et al., 1990). 상품의 가격 (P_l)은 이러한 임금과 평균생산성 (AP_l)의 차이에 좌우된다²⁴⁾.

$$P_l = W_l - AP_l \dots\dots\dots (2)$$

평균생산성은 다시 지식스톡과 물적 자본스톡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로써 양자는 수출 증가에 간접적 방식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지식과 물적 자본스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AP_l = \eta K_l + \sigma C_l \dots\dots\dots (3)$$

$\eta > 0$, $\sigma > 0$

이제 지식이 외부로부터 파급되는 ‘개방적’ 혁신체제를 간주하면, 이 지역의 총지식 스톡 (K_l)은 먼저 지역 내 혁신과정에서 유발된 지식 (K_i)과 지역외로부터 파급된 지식 (K_f)으로 구성된다. 이 때 파급된 지식규모 (G)는 지식격차가 클수록 파급규모가 커진다는 신고전파적 가정과 달리 기술격차와 ‘학습능력’이나 ‘사회적 역량’ (social capability) (Abramobitz, 1986)에 따라 이중적으로 결정되는 비단조 함수관계에 따른다 (Verspagen, 1993). 나아가 이 지역의 혁신활동은 인적자본 투자규모 (H_l)에 따라 결정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지식스톡에 영향을

24) 평균생산성과 임금은 같은 단위로 계산되며 각 변수의 변화결과는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받는다. 또,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혁신은 사회적 자본의 규모 (S_t)에 크게 좌우된다.

$$K_t = \zeta I_t + \theta G e^{-G/\delta} \dots\dots\dots (4)$$

$$\zeta > 0, \theta > 0, \delta > 0$$

$$G = \ln(K_t/K_f) \dots\dots\dots (5)$$

$$I_t = aH_t + bK_t + sS_t \dots\dots\dots (6)$$

$$a, b, c > 0$$

(6)식을 (4)식에 대입한 후, 그 결과를 다시 (3)식에 대입하면 이 지역의 평균생산성에 관한 (7)식이 도출된다. (7)식의 결과는 한 지역의 평균생산성은 물적 자본투자규모, 인적자본 혹은 R&D 투자규모, 그리고 사회적 자본스톡, 나아가 외부로부터 파급되는 지식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부의 지식이 파급되는 과정,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R&D)이 혁신으로 전환되어 평균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은 선형적이거나 즉각적, 직접적이지 않고, 피드백과정을 거치는 비선형적 과정인 동시에 다양한 매개변수(제도적 역량)를 거치는 우회적, 간접적 과정이다. 즉, 창조된 지식이 확산되어 전량 혁신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 지역의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변수 등 사회적 역량에 좌우된다. 또, (4)식과 (7)식이 보여 주듯이 지식과 혁신이 피드백되는 과정에도 그러한 역량이 크게 개입된다. 이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지역간 지식 격차와 혁신 격차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상존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AP_t = \left\{ \sigma C_t + \frac{\eta \zeta a}{1 - b \zeta} H_t + \frac{\eta \zeta s}{1 - b \zeta} S_t + \frac{\eta \zeta b \theta}{1 - b \zeta} G e^{-G/\delta} \right\} \dots\dots\dots (7)$$

마지막으로, 이 생산성 함수를 수출함수에 대입하면 (2)식에 대입한 후, 이 결과를 다시 (1)에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수출함수가 도출되는데, (8)식은 세계시장에서 검증된 이 지역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이 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 지역의 수출경쟁력은 단지 요소부존도 가격(W_t)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출경쟁력은 창조된 지식과 파급된 지식, 사회적 자본에 따라서도 결정되며, 이러한 변수들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으로 '인정'받는 과정도

만만찮다. 이 과정에도 수많은 제도적 역량과 학습능력이 작용한다. 나아가, 이러한 매개변수들도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복잡한 상호작용관계를 거쳐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자체적으로 창조된 지식 (aH_t)이 혁신에 성공하여 수출 (X_t)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zeta \frac{\gamma - \beta \eta}{1 - b\zeta}$)와 같은 복잡한 과정이 개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자본에도 적용된다. 즉, 실로 사회적 자본의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수출경쟁력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식스톡에 적용되던 동일한 메커니즘 때문에 사회적 규모가 동일한 지역사이에도 수출에 대한 영향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²⁵⁾. 결국,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변수들의 수와 이들을 매개하는 변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관계,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지역간 동질성과 수렴에 관한 신고전파적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X_t = \beta W_t + (\phi - \sigma\beta)C_t + (a\zeta \frac{\gamma - \beta \eta}{1 - b\zeta})H_t + (s\zeta \frac{\gamma - \beta \eta}{1 - b\zeta})S_t + (1 - \beta) \frac{\gamma \zeta b \theta}{1 - b\zeta} G e^{-G\%} \dots\dots\dots (8)$$

4. 정책적 결론과 향후과제

‘학습’과 ‘혁신’이 새로운 경제활동과 성장전략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추동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과 달리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연구 역사는 매우 짧고 그 내용도 전자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이에 축적되어 온 국제적 연구 성과에 대한 편향적 관심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학계 내에서 시도된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이론적 체계화의 부재와 사회적 자본의 연구 부재를 지역혁신체제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지역 혁신과 경제성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결정성을 강조하고, 기술, 제도,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따른 지역성과의 ‘이질성’을 진화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적 자본’에 관한 부르디외, 콜만, 푸트남, 후쿠야마의 연구 성과를 크게 도입하였다.

확인된 사실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면서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공공재이며, 단순히 도덕적 가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

25) (8)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모형에서 우리는 W, C, H, S, G 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 즉, '경제적 공공재'라는 점이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 구조로서 존재하면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그 집단의 경제적 상호이익 달성에 기여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본은 혁신의 상호과정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지식기반시대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Lundva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과정은 단지 기술적,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학적' 과정이다²⁶⁾. 그러므로 지식 및 학습 경제 시대에서 지역이 '혁신적 지역 체제'로 되고자 한다면, 지식, 제도,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사회적 자본스톡'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학습 능력'을 제고하여 혁신율을 높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 우위" (Dosi *et al.* 1990)에 해당하는 이러한 역량은 '창조'되어 '조직'되는 것이며, 초기 '요소 부존도'와 무관하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고려한 지역혁신체제 모형을 마련함으로써 혁신 정책을 사회적 자본과 관련시켜 수립하기를 권유하는 이 논문의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결론은 실로 유익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향후 연구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모형을 뒷받침해 주는 실증연구결과들은 사회문화적 조건이 상이한 서구 지역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 경계 또한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지리적 경계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 사회에서 이 모형이 어느 정도 그 효력을 발휘할지는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 모형은 향후 한국 연구에 의해 실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혁신에 기여하는 유익한 경제제라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창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자본이 창조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6) Cooke and Morgan (1996)은 "지역 경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역 경제의 성공이 문화, 사회, 제도적 성과와 불가분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라고 요약한다.

〈참고문헌〉

- 한성안 (2002), “개방경제하의 지역혁신체제 모형 연구”, 「경제학 연구」, 제50집 3호, pp. 5-56.
- Abramowitz, M. (1986), “Catching Up, Foreign Ahead, and Falling Behi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6, No. 2, pp. 386-406.
- Arrow, K. J. (1974), *The Limits of Organiza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Asheim, B. T. (2000), “The Learning Firm in the Learning Region: Workers Participations as Social Capital”, *Paper presented at DRUID's Summer 2000 Conference*, Rebild, Denmark, June 15-17.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J. G. Richardson (ed.),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rusco, S. (1990), “Global Systems and Local Systems”, in F. Cossentino et al. (eds.), *Local and Regional Response to Global Pressure: The Case of Italy and Its Industrial Districts*, Research Series 103,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of Labor Studies, pp. 145-158.
- Carlsson, B. and R. Stankiewicz (1997), “On the Nature, Function and Composi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in B. Carlsson (ed.), *Technological System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Factory Automation*, Dordrecht, Boston,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oleman, J. S. (1986),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e, Ph. and K. Morgan (1996), “Growth Regions under Duress: Renewal Strategies in Baden Württemberg and Emilia-Romagna”, in A. Amin and N. Thrift (ed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Cooke, Ph. and K. Morgan (1998), *The Associational Economy, Firms, Regions and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si, G. (1982), "Technological Paradigms and Technological Trajectories: A Suggested Interpretation of the Determinants and Directions of Technical Change", *Research Policy*, Vol. 11, pp. 147-162.
- Fagerberg, J. (1988),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conomic Journal*, Vol. 98, pp. 355-374.
- Fagerberg, J. (1994),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Growth R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2, pp. 1147-1175.
- Freeman, C. and C. Perez (1988), "Structural Crises of Adjustment: Business Cycles and Investment Behaviour", in G. Dosi (eds.),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London and New York: Pinter Publishers.
- Freeman, Ch. and L. Soete (1997),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Cambridge: MIT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ambetta, D. (ed.) (198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 Guiso, L., P. Sapienza and L. Zingales (2000),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Financial Development", *NBER Working Paper*, No. 7563.
- Hong, H. et al. (2001), "Social Interaction and Stock-market Participation", *NBER Working Paper*, No. 8358.
- Knack, S. and Ph.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pp. 1251-1288.
- Legendijk, A. (2001), "Three Stories about Regional Salience: 'Regional Worlds' 'Political Mobilization', and 'Performativity'", *Zeitschrift für Wirtschaftsgeographie*, Vol. 45, No. 3-4, pp. 139-158.
- La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and R. Vishny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pp. 333-338.
- Locke, R (1995), *Remaking the Italian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uhmann, N. (1979), *Trust and Power*, New York: John Wiley.
- Luhmann, N. (1994), *Risk, A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Aldine.
- Lundvall, B. (ed.) (1992),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London and New York: Pinter.
- Lundvall, B. (1996), "The Social Dimension of Learning Economy", *DRUID Working Paper*, No. 96-1.
- Lundvall, B. and B. Johnson (1994), "The Learning Economy", *Journal of Industry Studies*, Vol. 1, pp. 23-41.
- Malerba, F. (1993), "The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Italy", in N. N. Nelson and S. G. Winter (eds.),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ulaert, F. and F. Sekia (1999), *Innovative Region, Social Region? An Alternative View of Regional Innovation*, University Lille 1, Dept of Economics.
- Mykelta, L and F. Farinelli (2000), "Local Clusters, Innovation Systems and Sustained Competitiveness", *UNU/INTECH Discussion Paper 2005*, UN University.
- Offe, C. (1996), *Trust and Knowledge, Rules and Decisions*, Washington: Goergetown University, p. 47.
- Ohmae K. (1991), *The Borderless World*, London: Fontana.
- Perez, C. (1983), "Structural Change and the Assimilation of New Technologi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s", *Futures* 15, pp. 357-375.
- Porter, M. E. (1990), *The Analysis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Macmillan.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1995), "The Case of Missing Capital", *Harvard University Working Paper 4*, Mass.: Harvard University.
- Rosenau, J. N. (1990),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 Saxenian, A. (1996),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mith, K. (1994),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d Technology Policy: Identifying

- The Key Issues”, *STEP Report*, No.1, STEP Group, Oslo.
- Sztompka, P. (1996), “Trust and Emerging Democracy: Lessons from Poland”, *International Sociology*, Vol. 11, No.1, pp. 37-62.
- UNCTAD (1998), “Promoting and Sustaining SMEs Clusters and Networks for Development”, *Paper for an Expert Meeting on Clustering and Networking for SME Development*, Geneva, 2-4 September, TD/B/COM.3/EM.5/2.
- Verspagen, B. (1993), *Uneven Growth Between Interdependent Economies: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Growth and Technology*, Aldershot: Avebury.
- Von Hippel, E. (1988), *The Sources of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oyer, R. and J. Roy (1996), “European High-technology Clusters”, in J. Mothe and G. Paquet,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ttawa: Pinter.
-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Free Press.